
2012 멕시코 학생운동, ‘내가 132번째’

조영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1. 서론

멕시코에서 젊은이들은 선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이 나라에서 정치나 정치가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가장 먼저 부정과 부패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2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는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 젊은 층의 관심이 뜨거웠다. 선거일 50일을 남겨두고 갑자기 부상한 ‘내가 132번째’(#Yo Soy 132)는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매스미디어와 여론조사 기관이 제도혁명당(PRI)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상황에서 ‘내가 132번째’의 등장은 계속 승승장구하던 제도혁명당에 큰 타격을 주었다. 반면에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게는 답답한 대선 정국에 신선한 바람이 되어주었다. 학생의 정치·사회적 참여는 멕시코 사

회에 새로운 활력과 동시에 우려도 낳았다.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정치적 이슈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활동은 대선 기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제 멕시코에서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은 1960년대 이후 다시금 중요한 사회 변혁의 주체이자 정치적 행위자로 부상했다.

이 글은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의 기원과 등장 배경, 조직화와 발전 및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과 매스미디어의 민주화 문제, 그리고 이 학생운동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의 기원

‘내가 132번째’는 제도혁명당 대선 후보 페냐 니에토와 관련된 작은 에피소드에서 탄생했다.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대부분의 매스미디어 조사에서 페냐 니에토가 월등한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앞서던 페냐 니에토는 잦은 말실수와 토론을 기피하는 태도 때문에 무능한 후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반면 그가 주춤하는 사이 3위로 뒤져 있던 좌파연합의 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했다.¹⁾ 5월 6일 있었던 대선 후보 간 토론회에서도 페냐 니에토는 준수한 외모와는 달리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 “제1차 대선 토론회에서 누가 패배했는가?”라는 질문에 65%는 페냐 니에토가 패배했다고 대답했다.²⁾ 짐

1) 페냐 니에토는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민행동당의 바스케스 모타(Josefina Vázquez Mota) 후보도 중부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면 민주혁명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했다(“Caen EPN y JVM” 2012).

2) <http://www.eleccion2012mexico.com>

차 수세에 몰리던 페냐 니에토는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5월 11일 페냐 니에토가 멕시코 최고의 사립대학 중 하나인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Universidad Iberoamericana)를 방문한 것은 주로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에서 자신의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과의 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무리의 학생이 2006년 페냐 니에토가 주지사로 재직할 당시 발생했던 아텐코(Atenco) 사태를 비판했다.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이에 따른 결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문제 삼았다.³⁾ 페냐 니에토는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그런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시 그런 순간이 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흥분한 학생들이 퇴장하는 페냐 니에토를 향해 “우리는 당신을 거부한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페냐 니에토는 화장실로 대피했다가 경호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학교를 빠져나갔다. 며칠 전 같은 대학에서 민주혁명당 후보가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라는 찬사를 듣고 간 것과 달리 페냐 니에토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주요 TV 방송국과 일간지들은 페냐 니에토를 지원하는 제도혁명당과 녹색당의 유력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태가 제도혁명당 후보를 음해하려는 외부 세력이 일으킨 정치적 보이콧이라고 주장했다.⁴⁾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 사태가 그 대학 소속 학생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며, 뒤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의미였

3) 2006년 5월 4일 멕시코 주 산살바도르 아텐코 지역에서 노점상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연방경찰과 지방경찰 2,515명이 투입되었고, 진압 과정 중 14세의 소년과 20세의 젊은이가 사망했다. 폭력, 고문, 불법 체포, 구금뿐 아니라 26명의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 멕시코 인권위원회는 10가지 점에서 경찰이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주민을 상대로 공권력이 불법으로 남용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4) 주로 언론은 제도혁명당 총재 호아킨 콜드웰, 녹색당 상원의원 아르투로 에스코바르, 민중조직 전국연합(Cofederación Nacional de Organizaciones Populares)의 에밀리오 감보아 등의 견해를 인용했다.

다. 그러나 5월 11일 행사에 참석했던 학생들은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과 제도혁 명당에 대해 분개했다. 131명의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 학생들이 학생증과 학 번을 카메라 앞에 제시하며 매스미디어의 근거 없는 모함을 반박했다. 이 비디오 는 5월 14일 유튜브에 탑재되었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음해하는 정치가 들과 매스미디어를 향해 자신들이 그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님을 다음과 같이 분 명히 밝혔다.

호아킨 콜드웰, 아르투로 에스코바르, 에밀리오 감보아 씨와 편파적인 매스 미디어를 향해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베로아메리 카 대학교 학생이며, 동원된 사람도 아니고, 폭력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 구의 조종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Responden en video” 2012).

이후 수많은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 학생들의 입장 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132번째로 131명의 학생들과 함께한 다는 연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132번째’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3.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의 조직화와 발전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 학생들은 5월 16일 첫 모임을 주최한 후 학생운동을 위한 조직화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정치 세력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적인 학생운 동을 지향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들은 다양한 생각과 이념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국민에게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처음부터 이베로 아메리카 대학교 내부 운동이 아닌 다른 대학과 연대하는 학생운동을 계획했던 것이다.

5월 18일 멕시코시티 주요 사립대학(Iberoamericana, La Salle, Anahuac, el TEC, ITAM) 학생들은 선거 유세 기간 매스미디어의 편파적 정보 제공과 왜곡을 비난 하며 텔레비사(Televisa) 방송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에서 처음으로 ‘내가 132번째’라는 피켓이 사용되었다.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거부를 표명한 것은 멕시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Estrello y Modonesi 2012, 222). 지방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항의 집회는 폭력적이기보다는 마치 젊은이들의 축제처럼 거행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제도혁명당 지지자들과 학생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달 21일, 1968년 학생시위가 있었던 틀랄텔룰코 제3문화광장에서 전국 대학생들이 집회를 가졌다. 23일에는 사립대학뿐 아니라 멕시코국립대학(UNAM)을 비롯한 주요 국·공립대학 학생 1만 5,000명이 항의의 뜻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대학생들은 단과대학이나 학교별로 대변인을 선출했으며, 그들 중에서 대학 전체의 의견을 전달할 대변인을 선출했다. 대변인이라는 직책은 소수가 독점하는 고정직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맡는 순환직 방식을 채택했다.⁵⁾ 점차 대학 간 경계를 뛰어넘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대학들 사이에도 의견 교환, 토론과 협의를 위한 멕시코전국학생총회가 결성되었다. 끝이

5) 1999년 학생운동은 일반 학생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학생운동 지도부를 장악한 소수의 급진적 리더들이 보인 비민주적 태도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변인을 순환적으로 결정한 것은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지키고, 소수가 주도하는 학생운동의 권력화 현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명하달식 지도 체제를 거부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선택한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 멕시코 밖에서 학생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내가 132번째 국제운동’(#Yo Soy 132 internacional)을 결성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학생운동으로 정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운동이라는 틀에 한정되는 것은 거부했다.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정치 변혁을 이끄는 시민운동이나 정치운동 차원으로 발전하길 원했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시민운동이나 민중운동과 연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운동이라고 해서 특정 정치가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정치운동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⁶⁾

‘내가 132번째’ 소속 학생들은 7월 1일 대선 전까지 시급히 요구되는 일이 매스미디어의 정보 왜곡과 중립성을 상실한 언론으로부터 대선 과정의 민주성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실천했다. 첫째, ‘내가 132번째’ 소속 학생들은 내무부와 연방선거관리위원회(IFE)에 토론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토론 시간의 연장과 토론 과정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영할 것을 촉구했다. 1차 대선 토론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 방송된 것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들은 곧바로 국민들에게 대선 후보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을 이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알렸다. 동시에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토론회와는 별도로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가 132번째’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곧바로 전국 차원의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결국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둘째, 2006년 선거에서 재현된 부정선거 시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직접 투표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했다. 셋째, 젊은 유권자들에게 스스로 의식 있는 투표를 할

6) <http://senderodefcall.blogspot.com>

수 있도록 의식 개혁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인맥과 개인적 접촉, 학교, 단체를 통해 페냐 니에토에게 투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렸다.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나누어 정보를 보급하는 학생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다. 대선 투표일이 가까워오자 ‘내가 132번째’ 내부에서 좌파에 표를 몰아주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⁷⁾

‘내가 132번째’ 학생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인쇄매체뿐 아니라 인터넷과 SNS를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매스미디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운동에 동조하는 라디오 매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또한 지식인과 예술가를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학생들은 주로 군중집회나 항의 행렬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대선 직전인 6월에는 대규모 집회와 행렬이 매일 반복되었다. 텔레비사 본사 앞 군중 집회, 소칼로 광장에서 텔레비사 방송국 앞까지의 행렬, 제도혁명당 당사 앞 집회, 연방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 시위, 페냐 니에토에 반대하는 행진, 제도혁명당이 범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비난하는 행렬이 있었고, 음악을 통해 투쟁하는 콘서트도 매주 개최되었다. ‘더 이상 제도혁명당은 안 된다’(No más PRI)는 피켓도 등장했다.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정국 마지막 기간에 일어난 이런 시위와 집회는 제도혁명당과 페냐 니에토의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

하지만 7월 1일 투표 직후 출구조사 발표는 페냐 니에토의 승리였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과 칼데론(Felipe de Jesús Calderón) 대통령도 페냐 니에토의 승리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진행되기 전이라 위법적인 것이었다. 학생들은 대통령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이 선거 과정에 개

7) <http://senderodefcall.blogspot.com>

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중에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득표율에서 1위인 페냐 니에토는 2위인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6.62%포인트 앞섰다.⁸⁾

선거 직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레오날도 발데스 수리타(Leonardo Valdés Zurita)는 멕시코 대선이 모범적이고, 참여적이며, 평화적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2년 대선이 아주 이례적인 깨끗한 선거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혁명당과 주요 시민사회단체, ‘내가 132번째’ 소속 학생들은 이번 대선이 깨끗하지 못한 부정선거라는 점을 부각했다. 매스미디어의 편파적 보도, 여론조사 기관의 정보 왜곡, 1,100건의 불법 행위, 모넥스(Monex) 은행과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소리아노(Soriano)를 통한 매표 행위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선거자금 초과와 공적 자금의 유용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제도혁명당과 페냐 니에토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선거 다음 날부터 학생들과 좌파단체, 일부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럽과 북미 등 멕시코 밖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시위가 있었다. ‘내가 132번째’ 소속 학생들과 멕시코 좌파정당 연합은 선거 무효를 주장했고, 선거 재판소에 부정선거 사례들을 고발했다.⁹⁾ 매스미디어와 기존의 특권층이 페냐 니에토를 포장해서 멕시코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이를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측은 ‘멕시코의 존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국 플랜’을 조직해 대항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여

8) 제도혁명당과 녹색당의 후보인 페냐 니에토는 38.21%를 득표했고, 국민행동당의 바스케스 모타는 25.41%를 획득했다. 민주혁명당과 노동당 등 좌파연합 후보인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31.59%를 득표했다 (IFE 2012).

9) 칼테론 대통령과 국민행동당도 매표 행위 등 일부 결함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 전체가 부정선거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에 가담했고, 전기노조, 교육노조 등도 투쟁에 동참했다.

이와는 별도로 ‘내가 132번째’는 자신들의 계획 속에 9월 1일 대통령 국정 보고 거부, 9월 16일 독립기념일에 ‘제도혁명당 없는 멕시코 만세’ 외침 투쟁, 10월 2일 68 학생운동 희생자와 아텐코 사태의 희생자를 기념하며 실시하는 국민 총파업 지원, 12월 1일 대통령 취임식 거부 등의 투쟁 일정을 확정하고 투쟁 전선에 합류했다.

대선 이후 소리아노 체인점과 같은 부정선거에 가담한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다. 그러나 투쟁 과정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구타와 감시, 영장 없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132번째’는 학생들의 구속 사실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국민에게 알렸다. 그리고 구속자 석방을 위해 인권위원회를 조직해 법률적으로 대응했다.

최종적으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혁명당,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생들이 제기하는 모든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 요구를 거부했다. 단지 모넥스 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0% 이상의 투표함을 재검표했다. 그리고 선거재판소는 일부 결함에도 불구하고 페냐 니에토가 획득한 표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최종 승리자로 발표했다. 결국 12월 1일 페냐 니에토는 학생들과 좌파의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2000년 대통령궁을 떠난 ‘공룡’ 제도혁명당이 12년 만에 다시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권좌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4.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과 매스미디어의 민주화 문제

앞서 살펴봤듯이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이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매스미디어의 편파적 보도와 정보 왜곡 때문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로 논의한 것은 매스미디어의 민주화라는 주제였다. 멕시코의 정치·사회적 발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현 언론과 방송 관련 메커니즘 자체를 주요 개혁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 학생들은 독점적 특권을 누리는 방송기업들이 주요 정치적 행위자로 부상해 월권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소수의 엘리트 그룹과 언론 방송 재벌들이 정당과 결탁해 특정 후보를 후원하는 것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매스미디어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비민주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방송 재벌의 중립성 상실 정도가 위험스러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거부감은 민감한 대선 정국 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다. 처음으로 ‘방송정치’라는 문제가 정치 개혁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내가 132번째’의 구성원들은 멕시코의 방송 통신, 언론이 주민 통제의 수단이자 지배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판단했다. 매스미디어가 사회 발전과 교육 기능, 국민 여론 수렴 기능 대신 정보 왜곡과 진실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고 본 것이다.

멕시코에서 실제 권력은 매스미디어를 장악한 대기업 수중에 있다. 한 예로 멕시코 내 최대 매스미디어 기업인 텔레비사의 핵심 임원 10명 중 5명은 멕시코 10대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 알베르토 바일레레스, 헤르만 라레아, 로베르토 에르난데스 등은 각각 멕시코 부자 서열에서 2위, 3위, 4위 그리고 9위를 차지한다. 여기에 에밀리오 아스카라가 후안은 텔레비사 대표로 부자 서열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이 멕시코 시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

고 있는 것이다. 텔레비사와 아스테카(Azteca) 그룹, 이 두 기업이 TV와 라디오 등 95%의 방송을 독점하고 있다. 단 두 개의 기업이 매스미디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소수의 기업이 주도하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가 가능한 이유다. 이 나라는 유럽처럼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매스미디어 체도를 구축하지 못했다. 매스미디어의 사회화, 공익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초기부터 제도혁명당의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매스미디어의 사유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매스미디어 기업은 경쟁 없는 시장에서 특권 세력으로 자라났다. 2000년 대선 패배 이후 제도혁명당의 패권이 약화되자 매스미디어 기업의 권력과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다른 경제 그룹과 동맹하면서 정치 권력의 손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더 독립적이고 자치적이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매스미디어 권력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세력이 되었다.

하지만 제도혁명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2005년부터 이런 징후를 고발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헤나로 비야밀은 시사주간지 『프로세스』를 통해 페냐 니에토를 후원하기 위한 매스컴 전략이 실행되고 있다고 고발했다(Villamil 2012). 2012년 6월 영국 신문 『가디언』은 텔레비사가 페냐 니에토 후보를 지원하는 다양한 매스미디어 프로그램을 제도혁명당에 팔았다고 폭로했다.¹⁰⁾ 페냐 니에토가 멕시코 주 주지사(2005~2011)로 있던 기간을 포함해 2012년까지 매스미디어의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 전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페냐 니에토를 전국적 정치인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이미지 작업은 성공적이었다. 주요 뉴스 프로그램과 오락물, 비디오, 유튜브 등 모든 종류의 대중매체가 동원되었다. 이런 전략에는 페냐 니에토의 정치적 라이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도 포함되었다.

10) <http://www.yosoy132media.org>

역사적으로 보면 제도혁명당과 텔레비시는 지난 60년간 밀월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51년 첫 TV 방송국을 개국할 때부터 제도혁명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텔레비시는 제도혁명당의 충견(忠犬)이었다.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일당독재로 71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제도혁명당과의 공모 속에서 텔레비시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텔레비시는 중립성이라는 덕목을 잃었다. 정보 독점과 왜곡, 편파 방송을 일삼았다. 학생들은 1968년 학생운동이 발생했을 때 텔레비시는 제도혁명당이 원하는 정보만 국민에게 제공했고, 이 운동의 실상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내가 132번째’ 학생들의 시각에서 보면, 매스미디어가 정치 조작이나 음모의 상징인 것이다.

학생들은 “매스미디어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Lorot 2012). 그들은 소수의 매스미디어 기업에 의한 방송과 언론 장악, 정보 독점을 반대하고 제도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탈중앙화,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정의로운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다양한 시각이 표출될 수 있는 공간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며, 기업이 아닌 국가가 매스미디어를 관리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매스미디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시민 합동 감시기구의 창설을 제안했다.¹¹⁾

11) <http://www.yosoy132media.org>

5.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의 특성과 한계

'내가 132번째' 소속 학생들은 멕시코의 현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멕시코는 인권이 존중되지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는 나라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운동의 슬로건을 '만일 함께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누가 이 어둠을 밝히겠는가?'(Si no ardemos juntos, ¿Quién iluminará esta oscuridad?)라고 결정했다. 위기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장으로 선택한 것이다.

'내가 132번째' 소속 학생들은 멕시코 국민들이 상실한 정보와 통신, 소통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러한 권리 회복이 멕시코의 정치·사회적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언론과 방송 등 대중매체의 다원화와 민주화 없이는 멕시코의 민주주의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의 목표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제도나 구조 자체를 개혁하고 변혁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의하고 비민주적인 현 체제를 거부한다. 대학생들은 교육과 보건, 생태 문제를 포함해서 멕시코 국민의 통합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경제, 정치,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 학생들이 완수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완성되는 '더 나은 멕시코'다. 이것이 교육, 보건, 인권, 사회적 폭력 문제, 환경, 인디오들의 권리, 성적 평등, 정의 요구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발언하는 이유다. 한 예로 2013년 3월의 활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사회의 병영화 반대를 위한 소칼로 군중집회를 개최한다. 둘째, 3월 8일 개최되는 여성 살해 반대 집회에 참여한다. 셋째, 3월 18

일 에너지 개혁 반대 데모에 동참한다.¹²⁾

그렇다면 이 운동은 대선 정국 이후 사라지는 단순한 즉흥적 학생운동이 아니라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가진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¹³⁾ 이런 관심의 다양화와 사회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은 다른 시민사회운동과 쉽게 연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이 보이는 비폭력 반신자유주의운동이라는 특성은 여러 면에서 국제적 연대를 용이하게 한다. 칠레의 학생운동, 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점령하라’,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과 같은 운동은 이미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리고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운동은 1999년 등장했다 사라진 학생운동과 달리 사회 각 부분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점이 기존의 학생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운동의 구조나 조직 면에서 어떤 정당과도 연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것은 어떠한 정당으로부터 지시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활동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선언과는 달리 분명히 반(反) 페냐 니에토와 반제도혁명당 노선을 취하고 있다.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이 페냐 니에토를 거부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 주지사 재임 시절 아텐코 사태 때 취한 공권력의 남용과 억압적 태도가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멕시코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적 방송 권력의 후원에 의해 대선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¹⁴⁾ 게다가 많은 학생들은 제도혁명당의 귀환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제도혁명당은 71년간의 장기 독재를 통해 억압, 권위주의, 부패 만연, 밀실 행정, 투표 매수 행위, 공적인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 등 반민주적 성격을 보였

12) <http://www.yosoy132media.org>

13) <http://senderodefecall.blogspot.com>

14) <http://www.yosoy132media.org>

기 때문이다. 둘째, 이 운동이 무정과 운동이라고 해서 이 운동이 무정치 운동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운동에 속한 학생들은 정치와 관련된 업무를 고귀하게 보고 이 일에 긍정적으로 참여한다. ‘내가 132번째’는 시민들 사이의 소통과 의식화를 통한 공적 영역의 확장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셋째, 이 운동은 자신들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포용한다. 고유한 운동의 자치적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다른 투쟁이나 운동에 적극적 연대를 표한다. 따라서 다원적인 특성을 갖는 운동이다. 넷째, 폭력의 사용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다섯째,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은 대화를 통한 결정과 그것들을 통합하는 위원회를 통해 자치를 실천한다. 따라서 운동 내부의 정보의 투명성과 수평적 이동, 그리고 대화를 강조한다. 여섯째, 거짓 민주주의에 대해 거부하고 사회의 변혁과 새로운 국가 건설에 투신하는 운동이다.¹⁵⁾

하지만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철학자 엔리케 두셀(Enrique Dussel)은 조심스럽게 이 운동이 가진 결함을 언급했다. 그동안 학생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학생대표부 뒤에 그들의 정책과 실천을 지지하는 학생 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두셀은 운동의 조직화 문제를 지적했다(Dussel 2012). 이 운동의 생존과 발전 자체가 조직화에 달려 있다고 본 것이다. 수평적 리더십이 매우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쉽게 와해되고 해체될 가능성도 많다는 입장이다. 구조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이 운동은 권력과 자본을 장악한 제도혁명당이나 매스미디어 그룹으로부터 가해지는 분열 정책과 방해 공작을 견디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두셀은 학생대표부가 학생들의 의사를 확실히 대변한다면 수직적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수직적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하달되는 지시를 의미

15) <http://www.yosoy132media.org>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수립되는 대표성과 전체 학생들의 의사를 실천하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셀은 그렇다고 학생운동이 관료주의나 제도적 측면만 강조해 조직의 유연성이나 창조성이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1999년 학생운동이 실패한 이유가 내부의 소통 부재와 소수의 폐쇄적 리더십이라고 진단한 두셀은 무엇보다 다양한 그룹 간 창조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칙이나 조직의 정관이 유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내가 132번째’ 운동은 대선 과정부터 반 페냐 니에토와 반제도혁명당 노선을 분명히 표명했다. 정부와 제도혁명당이 주도하는 다양한 개혁들, 특히 에너지 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정권을 잡은 페냐 니에토와 제도혁명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책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둘 수 없는 세력이 되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세력화를 무력화하거나 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가 132번째’ 소속 학생들 중에는 페냐 니에토와 제도혁명당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페냐 니에토의 반대 세력인 로페스 오브라도르나 좌파연대와 이념적으로 친밀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 수립과 소수가 독점한 매스미디어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구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 개혁 문제까지 동일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이 조직은 전국적 규모를 가진 방대한 조직이지만 동시에 매우 느슨한 조직이다. 다양한 학생 그룹들이 존재한다. 정치 상황 전개에 따라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고, 중도나 진보 노선 사이에 이념적 갈등이 촉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공과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현재 멕시코 정치 발전에 ‘내가 132번째’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멕시코 정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상기시켰다. 이 운동은 처음으로 매스미디어가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병임을 지적한 것에

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 학생운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거창한 문제, 추상적인 문제가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쟁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 세대의 주인인 젊은이들이 멕시코 정치,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주도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참고문헌

- “Caen EPN y JVM; crece AMLO: encuesta de Reforma.” 2012. *Proceso*, 25 de abril,
<http://www.proceso.com.mx/?p=305363>
- Dussel, Enrique. 2012. “#YoSoy132 y la organización posible.” *La Jornada*, 1 de agosto.
<http://www.jornada.unam.mx/2012/08/01/opinion/022a1pol>
- Estrello, Luz y Massimo Modonesi .2012. “El #YoSoy132 y las elecciones en México. Instantáneas de una imposición anunciada y del movimiento que la desafió.” *OSAL* 32: 218~233.
- “Responden en video 131 alumnos de la Ibero: “No somos acarreados.” 2012. *Milenio*, 14 de mayo.
<http://www.milenio.com/cdb/doc/noticias2011/1db22ab7d4f97d7491d79e46da38c215>
- Villamil, Jenaro. 2012. “Televisa y la imposición de Peña Nieto.” *Proceso*, 2 de julio.
<http://www.proceso.com.mx/?p=312908>
- IFE(Instituto Federal Electoral). 2012. “Resultado del Cómputo Distrital de la Elección de Presidente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de 2012 por Entidad Federativa.”
<http://computos2012.ife.org.mx/reportes/presidente/distritalPresidenteEF.html>
- Lorot, Arthur. 2012. “Televisa en la mira del 132.” *Desinformémonos*, 29 de julio.
<http://desinformemonos.org/2012/07/televisa-en-la-mira-del-132>

웹사이트

- <http://www.yosoy132media.org>
<http://senderodefecall.blogspot.com>
<http://www.eleccion2012mexico.com>